

[보도자료]**“여성 연금 수급권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 개별수급권을 중심으로”**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배포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언론 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김 인 희

(연락처: 02-3156-7296, 이메일: haza4122@kwdimail.re.kr)

보고서 관련 문의 : 류 연 규 연구위원

(연락처: 02-3156-7184, 이메일: yunkyu@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경애)은 2007년 『여성 연금 수급권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 개별수급권을 중심으로』 연구에서 국민연금통계연보 자료를 성별 분석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연금 재정 문제를 극복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 제·개정된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이 여성에게는 여전히 충분한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의 실질적인 연금수급을 보장하기 위한 출산크레딧의 도입 역시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지적되었다.

◇ 여성 연금수급권 확보는 국민연금제도 사각지대 해소의 핵심

- 미래의 노후보장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입 현황이나 현재의 노후보장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수급 현황 모두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률, 수급율 모두 남성에 비해 낮았고 급여 수급 현황의 경우 85%에 이르는 여성노인들이 국민연금에서 배

제되고 있었다. 표준보수월액 등급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은 등급에 밀집해 있어서 향후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 연령과 가입형태를 통제하고 가입자 DB 표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가입기간, 보험료 납부기간 등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낮았다. 특히 40대 이후 여성과 남성 간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30-40대에서 경력단절이 일어나는 여성 경제활동의 M자 곡선과 무관하지 않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볼 때 현행과 같이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반영되는 소득활동자 중심의 국민연금제도에서 여성의 연금수급권은 취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 기초노령연금 도입되어도 사각지대, 여성노후소득보장 문제 여전히 존재
노후소득의 실질적 보장과 국민연금지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한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어도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은 그다지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서는 연금 수급연령에 임박한 55세~59세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집단에 대하여 개정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가상의 연금 급여액 수준을 예측하였다. 사업장 남성 가입자 이외에는 국민연금 급여를 받지 못하며, 여성 가입자는 기초노령연금만 받게 되는데 이는 최저생계비 대비 2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58세의 경우 개정국민연금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적용하면 여성의 경우 최저생계비 대비 28% 수준의 기초노령연금만 받게 되고 사업장 남성 가입자와 지역 납부 남성 가입자의 경우에는 각각 최저생계비 대비 86%, 54% 수준의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급여액을 받게 된다.

◇ 출산크레딧의 여성 노후소득보장 효과 미미

보고서에서는 또한 가상사례 분석을 통해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출산크레딧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출산·양육 기간이 1년 정도로 짧은 경우 둘째 자녀부터 크레딧을 적용하면 연금 급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도리어 높은 수준의 기초 연금과 최소기여기간 단축이 노후소득보장에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산·양육 기간이 길 경우에는 인정 기간이 긴 크레딧이나 최소기여기간 단축이 노후소득보장에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으로 인한 고용기간 단절이 있는 여성의 경우 적어도 최소기여기간만큼은 연금 가입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소득비례연금도 받을 수 있어서 노후소득보장에 유리하며 크레딧 기간 역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진은 “최근 출산율이 1.08 수준인 상황에서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는 크레딧 제도는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현재의 출산크레딧 제도를 비판하였다.

따라서 실질적인 여성 연금수급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어야 하고, 여성의 노동 참여와 육아 현실을 반영한 출산크레딧, 최소기여기간 감소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여성의 실질적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도 개혁 과정에서 여성의 현실을 반영하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1983년 개원 이래 양성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을 담당해 왔다. 여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 및 여성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도자료 끝.